

300-1-089. 신문조서(金在鳳 외 19명 치안유지법 위반)

■ 1925년 12월부터 1926년 4월 24일까지의 金在鳳 외 19명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내용 수록

- 金料全 외 17명에 대한 예심청구서가 1925년 12월 22일 新義州地方法院 豫審係에 접수되었다.
- 위 사람들은 노동·소작운동에 종사한다고 하며 사상연구 목적으로 北風會, 火曜會, 勞農總同盟 등 여러 가지 名稱의 團體를 조직, 이에 관여해 왔으며, 國內外 공산주의자들과 交友하여 생산의 사회공유, 分配平等, 계급타파, 개인의 自由平等을 이룩하여 세계인류의 최상 행복을 이루는 것을 공산주의라 믿고 변혁에 노력하였으며, 혁명도 기도하였다. 金料全 등은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을 조직하여 집행위원으로 金料全 등 7명을, 검사원으로 尹德炳·曹奉岩 등을 선출하여 모스크바 제3국제공산당과 기맥을 통해 세포단체로 공산주의 선전에 노력하였다. 또, 朴憲永의 집에서 고려공산청년회를 조직, 曹奉岩을 露國에 파견하여 金錢 등의 援助를 받고 공산주의 선전과 동지규합에 노력하였으며, 靑年會 郡聯盟을 조직하여 活用했다. 그러므로 치안유지법 위반, 1919년 制令7號 위반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 李仁·朴應茂·崔昌朝·李熙迪·卓昌河·韓根祖·李升雨 변호사 등의 선정계가 제출되었고, 각 피고인의 前科照會回報가 있었으며, 각자의 본적조회가 있었고, 1926년 2월 6일 搜索과 物件 차압이 있었다.
- 1926년 1월 30일 신의주지방법원 판사가 경성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서를 보냈고, 金料全 외 17명에 대한 搜索조서가 작성되어 2월 6일 수색이 있었으며, 압수당하기도 했다.
- 朴憲永·林元根에 대하여 1926년 1월 20일 新義州地方法院에서 피고인 신문조사가 진행되었고, 林亨寬은 1월 21일 신문조사가 있었으며, 1월 27일 회포주의 사상 자술서가 제출되었다. 朴光陽·曹利煥·金尙洙는 22일에 1회 피고인 신문조사가 실시되었고, 趙東根·洪增植은 26일, 張順明은 27일, 朴憲永 2회 신문조사는 1월 28일, 兪鎮熙 2월 2일, 獨孤侄·尹德炳·徐廷禧는 2월 3일에, 金景瑞·金若水는 2월 5일, 朱鎮建·陳炳基·車哲洙는 2월 10일, 金在鳳은 2월 12일, 宋瑋鎬는 16일, 朴憲永 3회는 2월 16일, 林元根은 19일, 洪增植·林亨寬 2회는 2월 23일, 朴吉陽은 25일, 金尙洙는 26일, 張順明은 27일, 金在鳳 2회는 3월 2일, 兪鎮熙는 3월 3일, 獨孤侄은 3월 4일, 朴憲永 4회는 4월 23일, 5회는 4월 24일에 피고인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